



EHNES QUARTET

CREDIA

에네스 콰르텟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유료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CREDIA MUSIC & ARTISTS

15만 공연애호가들의 선택

Club BALCONY가 제안하는 품격있는 문화예술의 경험과 서비스
클럽발코니와 함께 감동의 문화생활을 설계해보세요!

Club BALCONY는 15만명 클래식 애호가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고 수준,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로 감동이 있는 무대에 늘 함께 해왔습니다. 아울러 문화인들의 소사이어티를 꿈꾸며 시작된 CIELOS Club은 문화와 예술로 소통하고 신예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후원하며 보다 나은 문화생활을 누리는 모임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JOIN Club BALCONY

15만 공연애호가들의 선택 (예매고수의 노하우)

크레디아 기획공연 5~30% 상시 할인

나만의 비서! 티켓 오픈 무료 SMS 서비스

문화애호가의 필수품, Club BALCONY 매거진 무료우송

모바일 회원카드 확인 후 크레디아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증정

크레디아 기획공연 단독 선예매 및 예매, 취소, 티켓 배송 수수료 면제

만료 후 재가입 시 할인 혜택



JOIN CIELOS Club

CIELOS 회원만을 위한 프라이빗 음악회, 전시회, 렉처 문화행사 무료초대 (동반1인 포함)

CREIDIA의 엄선된 공연 패키지 30~50% 할인제공 및 좌석우위

Club BALCONY 평생회원 자격

Upcoming Programs

클럽발코니 렉처 프로그램

클럽발코니 x 오드포트 친절한 디토씨의 음악여행 <마르타 아르헤리치, 삶과 음악> 15/3(금) 8시

클럽발코니 x 스틸로 대니 보이 대니 구의 <그림 책을 듣는 밤> 15/17(금) 8시

씨엘로스 초대 프로그램

[CIELOS 회원 + 동반1인 무료 참석 가능]

CIELOS x LMOA 롯데뮤지엄 <끝없는 여정, 제임스 진> | 5/22(수) 3시

CIELOS x KUMHO 금호아트홀 시리즈 | 2019년 5월 ~ 12월

CIELOS x SEJONG 세종문화회관 시리즈 | 2019년 5월 ~ 6월

Ehnes Quartet

에네스 콰르텟

2019년 4월 26일 (금)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8PM Friday, April 26, 2019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제임스 에네스	James Ehnes
에이미 슈워츠 모레티	Amy Schwartz Moretti
리처드 용재 오닐	Richard Yongjae O'Neill
에드워드 아론	Edward Arron

주최 **CREEDIA MUSIC & ARTISTS**

후원 **KOREAN AIR**



도이치 그라모폰
유니버설뮤직 카탈로그 모음

“리처드 용재오닐” 데뷔 15주년

RICHARD YONGJAE O'NEILL



DUO (2018)



BRITISH VIOLA (2016)



SOLO (2012)



PREGHIERA (2011)



NOR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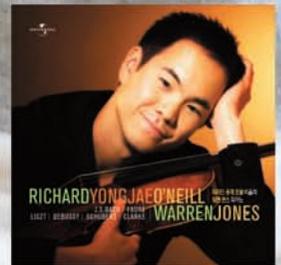
MYSTERIOSO (2008)



WINTER JOURNEY (2007)



LACHRYMAE (2006)



RICHARD YONGJAE
O'NEILL (2005)

모차르트 1756-1791, Austria

W.A.Mozart

현악 사중주 23번 F장조, K.590

String Quartet No. 23 in F Major, K.590

I. Allegro moderato

적당히 빠르게

II. Andante

느리게

III. Menuetto: Allegretto

미뉴에트: 조금 빠르게

IV. Allegro

빠르게

드뷔시 1862-1918, France

C.A.Debussy

현악 사중주 g단조, 작품 10

String Quartet in g minor, Op.10

I. Animé et très décidé

아주 단호하고 결정적인

II. Assez vif et bien rythmé

아주 빠르고 리듬감 있게

III. Andantino, doucement expressif

조금 느리게, 부드럽게

IV. Très modéré - En animant peu à peu - Très mouvementé et avec passion

보통 빠르기로 - 아주 느리게 - 매우 열정적으로

I N T E R M I S S I O N

드보르작 1841-1904, Czech

A.Dvořák

‘Cypresses’ 사중주 중에서 1번, 8번, 9번, 12번

Selections from Cypresses Quartet

I. Já vím, že v sladké naději (I Know that My Love to Thee)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VIII. Zde v lese u potoka (In Deepest Forest Glad I Stand)

깊은 숲 속에서 서 있는 것이 나는 기쁘다

IX. Ó, duše drahá, jedinká (Thou Only, Dear One, But For Thee)

오직 당신, 오직 하나, 그러나 당신만을 위해

XII. Ty se ptáš, proč moje zpěvy (You ask why my songs)

당신은 나의 노래들을 물으셨죠

차이콥스키 1840-1893, Russia

P.I.Tchaikovsky

현악 사중주 1번 D장조, 작품 11

String Quartet No. 1 in D Major, Op.11

I. Moderato e semplice

보통 빠르기로

II. Andante cantabile

천천히 노래하듯이

III. Scherzo. Allegro non tanto e con fuoco - Trio

쾌활하게

IV. Finale. Allegro giusto - Allegro vivace

정확한 빠르기로 - 매우 빠르고 생기있게

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 중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진, 영상, 녹음 기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Unauthorized cameras and recording devices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1685-1750
현악사중주 23번
F장조, K.590

Wolfgang Amadeus Mozart
String Quartet No.23
in F Major, K.590

모차르트는 1788년 무렵부터 꽤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시달렸다. 빈에서의 인기가 조금씩 시들해지는데다 투르크와의 전쟁과 경제적 침체로 빈의 귀족들이 도시를 비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어권 지역에서는 인기를 끌기 시작했지만 이것이 당장 그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1789년 4월, 모차르트는 제자인 카를 리피노프스키 공의 주선으로 열렬한 음악애호가였던 프러시아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를 만나러 베를린에 갔다. 이 여행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웠는데, 그래도 왕에게서 각각 여섯 곡의 현악사중주와 피아노 소나타 작곡 의뢰를 받았다.

모차르트는 빈으로 돌아와 즉시 사중주(K575)와 소나타 D장조(KV576)를 썼다. 하지만 곧 아내 콘스탄체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작곡은 1년 가까이 늦추어졌으며, 결국 두 곡의 사중주를 더 쓰는 데 그쳤다. 오늘날 ‘프러시아’ 사중주로 불리는 세 작품에는 의뢰인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국왕은 아마추어 첼리스트였기 때문에 모차르트는 이 세 곡에서 첼로 파트에 많은 신경을 썼다. 하지만 단지 첼로를 돋보이게 하지 않고 네 대의 악기에 모두 뚜렷한 역할을 부여해서 주제 선율과 반주를 모두 나누어 연주하도록 배려했다.

‘프러시아’ 사중주 중 마지막 곡이자 모차르트의 마지막 사중주이기도 한 F장조 사중주는 1790년 6월에 완성되었다. 이 작품은 세 곡의 자매작 중 가장 화려하고 외향적이며, 네 대의 악기가 서로 돌아가며 독주 악기처럼 활약하고 있다. 모차르트의 사중주 중 유난히 독특한 개성이 강한 곡이기도 한데, 가령 2악장(Andante)에서 주제 선율을 마치 명상이나 하듯이 고집스럽게 되풀이하는 모습이나 4악장에서 강한 감정과 대위법적인 악상으로 무게감을 불어넣는 형태는 이례적이며 다른 작곡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클로드 드뷔시 1862-1918
현악 사중주 g단조,
작품10

Claude Debussy
String Quartet in g minor,
Op. 10

드뷔시는 1893년 9월, 연가곡집 <서정적 산문들(Proses lyriques)>과 현악사중주 G단조를 나란히 완성했다. 8월부터 오페라 <펠리아스와 멜리장드>도 쓰기 시작했다는 걸 생각하면 31살 청년 작곡가의 창조력이 분출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드뷔시는 성악곡에서 바그너의 영향에서 벗어난 자신만의 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지만 현악사중주에서는 이를 쉽게 이룰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18세기 후반 몇몇 작곡가들이 뛰어난 현악사중주를 썼지만 대혁명 이후 실내악 전통이 끊기다시피 했고 세자르

프랑크(사실 벨기에 사람이다)와 댕디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걸작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오히려 드뷔시가 마음껏 악상을 펼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G단조 사중주는 대단히 개성적인 작품이다. 첫 악장부터 힘찬 악상을 보여주는데, 마치 작심하고서 그의 성악곡에 담긴 세련되고 모호한 음악과는 전혀 다른 음향을 탐구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전체적으로 음악 구조는 명쾌하고 간결하며, 선율을 부드럽게 받쳐주는 가벼운 텍스처어에는 드뷔시다운 매력이 넘친다. 또한 현악 피치카토 효과 등 색다른 효과가 돋보이는데, 어쩌면 <펠리아스와 멜리장드>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음향을 탐구하려고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작곡가는 본래 쇼송(Ernest Chausson)에게 사중주를 헌정하려고 하면서 ‘이제까지 직면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다시는 직면하지 않을 도전에 대한 멋진 응답’이라는 묘한 설명을 남겼는데, 쇼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결국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외젠 이자이(Eugène Ysaÿe)가 이끄는 이자이 콰르텟에 헌정했고 초연 역시 1893년 12월 29일,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안토닌 드보르작 1841-1904

사이프러스 (Cypřiše/Cypresses)

사중주 중에서

Antonin Dvořák

Selections from

Cypresses Quartet

드보르작은 아마도 브람스와 더불어 19세기 후반 가장 뛰어난 실내악 작곡가일 것이다. 그는 실내악 분야에서 다양한 형식과 편성을 끊임없이 실험했는데, 그 중심은 역시 14곡의 현악사중주이다. 더불어 드보르작에게는 정규 작품에 속하지 않는 현악사중주가 좀 더 있는데, 특히 가곡집을 편곡한 ‘사이프러스’는 매우 독특한 별격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곡집 <사이프러스>는 드보르작이 젊은 시절인 1865년 여름에 쓴 작품이다. 작곡가는 1865년부터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서 요제피나(Josefina Čermáková)와 안나 체르마코바(Anna Čermáková) 자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언니인 요제피나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에게 가곡집 <사이프러스>를 헌정했다. 구스타브 프플레게르-모라브스키(Gustav Pflieger-Moravský)의 시 18편에 붙인 이 연가곡집은 작곡가의 첫 성악곡으로, 구체적인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요제피나는 피아노 선생님의 구애를 거절했던 것이 분명하다. 시와 음악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의 기쁨과 슬픔, 고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드보르작은 결국 동생인 안나와 결혼했다. 하지만 그가 초기작을 대부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사이프러스>만은 평생 동안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말년까지도 계속 다듬고 오페라 아리아로, 피아노 곡으로, 또 현악사중주로 편곡한 것을 보면 요제피나와 작품에 대한 깊은 애착을 짐작할 수 있다. 현악사중주 편곡은 1887년 봄, 가곡집 중 12곡을 골라서 만든 것이다. 드보르작은 이 작품을 출판하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생전에는 하지 못했다. 그는 사중주 편곡에서 순서를 바꾸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수정작업을 대부분 무시하고 첫 사랑의 추억을 떠올리듯 젊은 시절의 원래 형태로 돌아갔다.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1840-1893

현악 사중주 1번 D장조,

작품 11

Pyotr Il'yich Tchaikovsky

String Quartet No.1

in D Major, Op.11

차이콥스키는 다른 장르와 마찬가지로 실내악 분야에서도 19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였다. 이제 막 정규 실내악 단체가 생겨나면서 실내악 전통이 꽃피고 있던 러시아에서 차이콥스키는 서유럽 실내악 전통을 러시아화하는 작업을 충실하게 수행했는데, 현악사중주 1번부터 고전주의적이고 균형 잡힌 소나타 형식을 따르면서도 곳곳에 자신만의 개성을 불어넣는 데 성공했다. 2번 사중주가 극적이고 3번 사중주가 우울하고 비극적이라면 1번은 민요 풍의 멜랑콜리가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 D장조 사중주는 생애 처음으로 기획한 개인 음악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으로, 1871년 5월에 모스크바에서 초연되었다. 1870년대 후반부터 작곡가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느린 악장은 이미 작곡가 당대부터 관현악을 비롯한 다양한 편곡을 통해 원곡보다 훨씬 더 유명한 단독 작품으로 자리 잡았고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1악장은 언뜻 모차르트를 떠올리게 만드는 밝은 감정과 정연한 형식미가 인상적인데, 조밀한 음향과 정교한 당김음 때문에 선율이 더욱 매력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발전부에서 반복에 이르는 부분에 담긴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감정이나 장대한 관현악 풍의 코다는 그만의 것이다. 민요 선율에 바탕을 둔 느린 2악장은 앞서 언급했듯이 ‘안단테 칸타빌레’라는 이름의 단독 작품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작곡가 자신도 연주회에서 앙코르로 자주 연주했으며 톨스토이는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연주회에서 이 곡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반면 스케르초 악장은 앞의 두 악장과는 대조적인 강한 힘이 돋보인다. 복잡한 리듬과 종잡을 수 없이 바뀌는 악센트, 대조적인 다이내믹은 차이콥스키가 아주 좋아했던 슈만의 영향을 보여주는 듯하다. 한편 마지막 악장은 장대한 규모와 모호한 화성, 피날레에서 들려주는 강력한 질주, 그리고 넘치는 기쁜 감정 등, 전곡 가운데 가장 ‘베토벤적’이지만 차이콥스키는 2악장에 이어 다시 한 번 민속 춤곡 선율을 인용함으로써 러시아적 색채를 강조했다. 작품은 생물학자인 라힌스키(Sergei Rachinsky)에게 헌정되었다.

글 | 송주호 (음악칼럼니스트)



2018
황금디아파종 상
수상

장-기엔 케라스 & 앙상블 레조난츠

Jean-Guihen Queyras & Ensemble Resonanz

5.24 LG 아트센터



프로그램 | C.P.E 바흐 첼로 협주곡 A단조, 하이든 첼로 협주곡 C장조, 하이든 교향곡 제28번 '마리아 테레지아' 등

일시 | 2019년 5월 24일(금) 8:00pm 주최/장소 | LG 아트센터 입장권 | R 10만 / S 8만 / A 6만 / B 4만 원

예매 | LG아트센터 02-2005-0114 인터파크 1544-1555 후원 | GOETHE INSTITUTE

COM
PAS
19

© Tobias Schull
© Marco Borggre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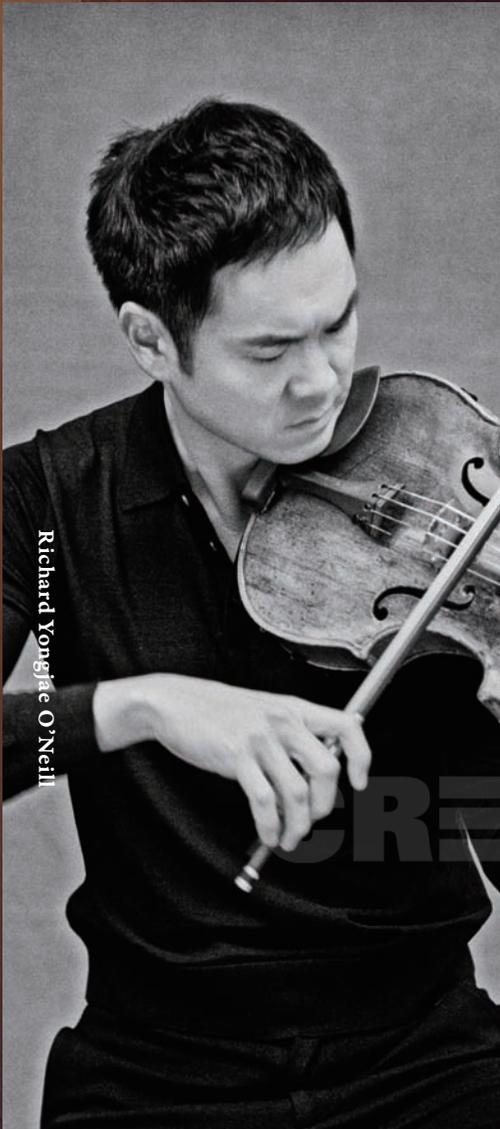
James Eh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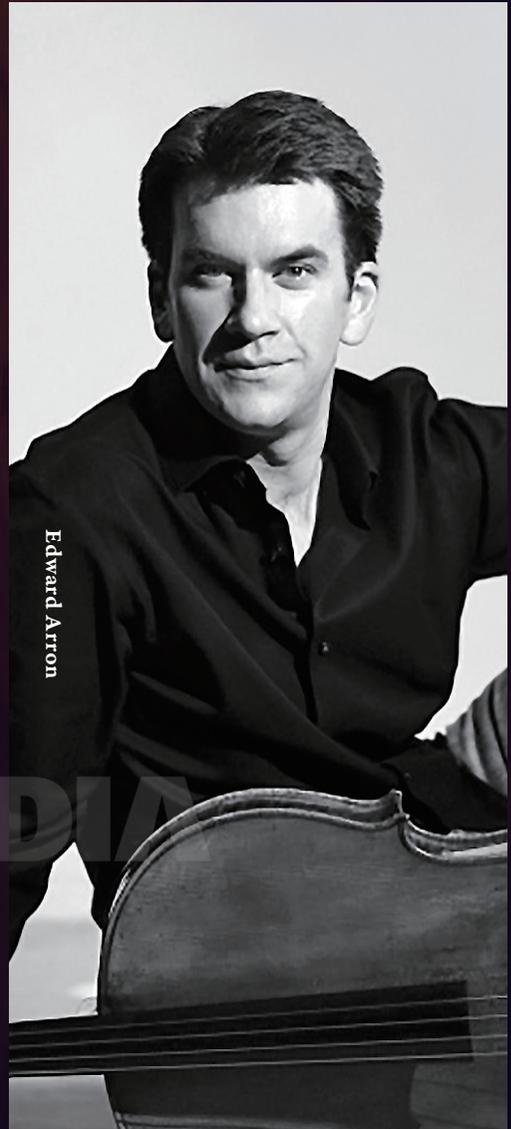
Amy Schwartz Moretti

Ehnes Quartet

에네스 콰르텟



Richard Yongjae O'Neill



Edward Arton

세계적 권위의 월간지 스트라드가 드림팀 라인업으로 극찬한 에네스 콰르텟은 2010년 시애틀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에서 상주 음악가를 시작으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양한 실내악 곡을 연주해왔다. 고도의 정제됨, 섬세함 그리고 풍부한 표현력은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관객들과 비평가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Onyx Classics에서 발매한 그들의 첫 쇼스타코비치 현악 4중주 레코딩 앨범은 찬사를 끌어냈으며, 현존하는 실내악 그룹 중 가장 인기 있는 현악 사중주단으로 자리매김했다.

2016년, 나홀로 걸쳐 예술의 전당에서 베토벤 현악 사중주 전곡 연주로 첫 내한공연을 치른 그들은, 총 6회 공연 모두 전석 매진의 기염을 토했다. 제임스 에네스 특유의 놀라운 비르투오시티, 작품의 내면을 파고드는 다채로운 음색과 균형 감각이 에네스 콰르텟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평가받았다.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에네스

Violinist
James Ehnes

2019년 그래미 상에서 2관왕을 차지한 시애틀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예술감독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에네스는 4세에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해 9세 때 바이올린의 거장인 프란시스 채플린을 사사하며, 세계 무대로 첫발을 디뎠다. 13세에 캐나다 몬트리올 교향악단과 데뷔 후, 1997년 줄리아드 음악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는 여느 바이올리니스트보다 안정적인 연주실력으로 세계 우수 오케스트라의 러브콜을 받는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 앤드루 데이비스 경, 샤를 뒤투아, 마크 엘더 경, 이반 피셔, 파보 예르비 등의 지휘로 보스턴, 시카고, 클리블랜드,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피츠버그, 뉴욕, 런던, BBC 필하모닉, 체코 필하모닉, DSO 베를린 등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2017년 아론 제이 커니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토론토, 시애틀, 달라스 교향악단과 초연했다. 이해 그는 로열 필하모닉 소사이어티의 기악 부문 상을 받았다.

그는 방대한 레퍼토리의 음반을 녹음해왔으며 파가니니 카프리스 음반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가 앤드루 데이비스 경 지휘로 필하모니아 교향악단과 연주한 엘가 협주곡은 그라모폰 상 등 여러 상을 받았다. 코른골트, 바버, 월튼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그라모폰 최우수 기악 독주 연주상과 JUNO 올해의 최우수 클래식 음반상을 받았다.

바이올리니스트 에이미 슈워츠 모레티

Violinist
Amy Schwartz Moretti

바이올리니스트 에이미 슈워츠 모레티는 현재 머서 대학교 맥더피 현악 센터의 음악 감독을 맡고 있다. 그녀는 워싱턴 국제 현악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계기로 카네기 홀에서 데뷔 무대를 가진 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폭넓은 음악활동을 펼쳤다.

오레곤 심포니, 플로리다 오케스트라, 휴스턴 심포니, 피츠버그 오케스트라, 애틀랜타 오케스트라,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활동하였다. 또 실내악에서 강점을 보이는 그녀는 2014-15년 제임스 에네스와 함께 한 듀오 음반으로 주노 상을 받았고, 낙소스, 산도스, 아르모니아 문디(Harmonia Mundi), 오닉스 클래식(Onyx Classic), CBC 레코드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래식 음반 기획사와 함께 작업하였다.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는 에네스 콰르텟의 일원으로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의 투어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그녀는 최근 로마 실내악 음악 축제, 클리블랜드 체임버 페스트, 예비앙 페스티벌, 시애틀 체임버 소사이어티 그리고 브릿지 햄프턴 실내악 축제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음악원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에이미는 위스콘신에 태생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와 캘리포니아에서 자랐고 지금은 그녀의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조지아에서 살고 있다. 엄마로서의 인생을 즐기며, 특히 축구와 테니스에 관심이 많다.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Violist

Richard Yongjae O'Neill

리처드 용재 오닐은 비올리스트로서 두 차례 그레미상 후보로 지명되었고 에미상과 에버리 피셔 커피어 그랜트 상을 받은 드문 연주자 중 한 사람이다. 솔리스트로서 런던 필(블라디미르 유롭스키 지휘), LA 필(미구엘 하스 베도야 지휘), 서울시향(프랑수아 자비에르 로스 지휘), KBS교향악단, 기돈 크레머 & 크레메라타 발티카, 모스크바 체임버 오케스트라, 알테 무지크 쾰른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뿐만 아니라 뉴욕 카네기 홀, 에버리 피셔 홀, 케네디 센터와 런던 위그모어 홀, 파리 샬 코르토, 도쿄 오페라시티,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매년 독주회를 이어오고 있다.

실내악 연주자로서도 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와 카메라타 퍼시피카의 상주 비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종솔로이스츠에서는 6년간 비올라 수석과 독주자로 활동하였다. 또한, 에마누엘 axes, 레온 피셔, 개릭 올슨, 줄리아드 현악 사중주단, 앙상블 빈-베를린, 에네스 콰르텟 등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과 연주해 왔다. 말보로, 아스펜, 브리지햄튼, 브루클린, 카잘스, 대관령, 라 호야, 통영 등 다수의 국제 음악제에도 참여해왔다.

리처드 용재 오닐은 유니버설/도이치 그라모폰 아티스트로서 2017년까지 9장의 솔로 앨범을 발매, 총 200,000장 이상의 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다. 현재 1727년 마테오 고프렐레르가 제작한 베니스 산 'ex-Trampler'와 가스파로 다 살로 'ex-Iglitzin, the Countess of Flanders'를 사용하고 있다.

첼리스트

에드워드 아론

Cellist

Edward Arron

우아한 음악성과 열정적인 연주, 그리고 창의적인 레퍼토리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첼리스트 에드워드 아론은 신시내티 출신으로 2000년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데뷔 리사이틀을 연 이후 명성을 얻어 유수의 오케스트라의 협연자, 실내악 연주자, 독주자로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2018-19시즌, 그는 코네티컷 주의 올드 라임에서 열리는 Musical Masterworks 콘서트 시리즈의 예술감독으로서 10주년을 맞이하였다. 또한 사우스캐롤라이나, Beaufort에서도 음악 감독을 맡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주 윌리엄스타운에 있는 클락 아트 인스티튜트 상주 음악가 시리즈에 자신의 아내인 피아니스트 박지원과 공동 예술 감독으로 함께 하고 있다.

카네기 홀, 쟈켈 홀, 링컨 센터, 에버리 피셔 홀 등에서 수많은 연주를 선보였다. 잘츠부르크, 모스틀리 모차르트, 탕글우드, 브리지 햄프턴, 스폴레토 페스티벌, 산타페, 시애틀 페스티벌, 핀란드 쿠모 체임버 뮤직 페스티벌, 대관령 국제 음악제, 예비앙, 샬로츠빌, 텔류라이드 음악 축제, 서울스프링페스티벌, 체서피크 체임버 뮤직 페스티벌, 라호야 여름 축제, 바드 음악 축제 등 실내악 연주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그는 요요 마의 실크로드 프로젝트, 그리고 아이작 스텐의 예루살렘 실내악 엔카운터에도 참여하였다. 그는 2016년부터 매사추세츠 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19세기 모델을 21세기적인 형태로 녹여낸 정상급 앙상블

4월 26일에 있을 연주회에서 에네스 콰르텟은 모차르트-드뷔시-드보르작-차이콥스키로 이어지는 대담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1부의 모차르트와 드뷔시가 형식과 구조의 균형과 다양한 음색을 탐구하는 무대라면 2부의 드보르작과 차이콥스키는 19세기 후반 정점에 도달한 낭만주의 음악의 미학과 슬라브 전통을 엮어내는 무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연주회는 리처드 용재 오닐의 국내 데뷔 1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18세기 중반 빈 고전파 시대에 바겐자일, 홀츠바우어, 그리고 누구보다도 요제프 하이든과 더불어 등장한 현악 사중주는 이전 바로크 시대에 트리오 소나타가 그랬듯, 가장 압축적이고 조밀한 실내악 장르의 으뜸으로 떠올랐다. 그 후 19세기 내내, 사실상 훌륭한 현악 사중주단은 뛰어난 리더(바이올린)의 이름과 동음이의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토벤과 슈베르트 사중주를 초연한 것으로 유명한 이그나츠 슈판치히의 콰르텟(사중주단)을 필두로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저마다 콰르텟을 이끌며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중주 연주 전통을 확립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요아힘(Joseph Joachim)이 이끌었던 요아힘 콰르텟과 카페(Lucien Capet)가 이끌었던 카페 콰르텟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여러 측면에서 현대적 현악 사중주의 모범을 제시했다. 물론 이렇게 리더가 지나치게 독보적인 형태는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컸고, 네 명의 단원이 고른 기량으로 정밀한 앙상블을 들려준 보헤미아 콰르텟이 등장하면서 그 단점이 발전적으로 극복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도 실내악을 사랑하는 비르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를 중심으로 뭉친 콰르텟은 사랑을 받고 있다. 물론 19세기 말처럼 ‘독주 바이올린과 3대의 반주 악기’가 아니라, 네 명의 동등한 예술적 동반자이자 균등한 앙상블로서 말이다.

“예민하고 완벽하게 어우러진 정교함이 대기를 가른다”

캐나다 출신의 제임스 에네스(James Ehnes)가 이끄는 에네스 콰르텟은 체헤테마이어 콰르텟, 테츨라프 콰르텟 등과 더불어 19세기 모텔을 21세기적인 형태로 녹여낸 정상급 앙상블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독주자 경력 초기부터 시애틀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Seattle Chamber Music Society)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와 편성의 실내악 연주를 했던 에네스는 201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동료들과 함께 현악 사중주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2014년 에네스와 에이미 슈윙즈 모레티(바이올린), 리처드 용재 오닐(비올라), 로버트 드메인(첼로)으로 이루어진 콰르텟은 첫 번째 유럽 연주 여행과 쇼스타코비치 사중주곡 녹음(7번, 8번)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고 2016년 슈베르트-시벨리우스 사중주를 담은 음반(Onyx)으로 높이 비상하기 시작했다. 그라모폰은 이들이 연주한 ‘죽음과 소녀’가 개성적인 해석이라고 찬사를 보내면서 “고뇌에 차 있기는 하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자유분방함 대신에 대단히 예민하고 완벽하게 어우러진 정교함이 대기를 가른다”고 평했다.

그리고 에네스 콰르텟은 2016년, 나홀로 걸쳐 베토벤 현악 사중주 전곡을 연주하면서 우리나라 애호가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들은 저마다 뛰어난 독주를 들려주면서도 필요한 곳에서 정밀한 앙상블을 들려주는 개성적인 베토벤 해석을 선보였다. 과장된 표현이나 매너리즘, 극단적인 템포를 피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서 얼마든지 거칠어지거나 또 깊이 침잠해가는 이들의 연주는 대단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명 모두 저마다 독주와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바빠서 몇 달에 한 번씩 모일 수 있는 단체라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집중력과 균형 감각이었다. 현악 사중주 앙상블이 무르익으려면 다른 실내악 장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네 사람 모두 시애틀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의 핵심적인 구성원으로 오랫동안 음악을 함께 연주하며 같은 이상을 공유하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내한 연주회 이후 에드워드 아론이 새로운 첼로 주자로 가세했지만, 이미 줄리아드 시절부터 에네스와 함께 사중주를 연주했던 아론은 아무런 위화감 없이 이들의 음악 만들기에 동참하리라 짐작한다.

글 | 이준형 (음악칼럼니스트)

2019

DITTO FESTIVAL
디토 페스티벌



비 범 한 조 우

리처드
용재
오닐

제
레
미
텐
크

환상곡

CREDIA

FANTASIA

바흐 크로마틱 판타지와 푸가

슈만 비올라 환상 소곡집

슈만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이야기 그림책

시어 머스그레이브 In the Still of the Night

켄지 번치 The Three G's

헌데미트 비올라 소나타 4번

2019.6.14 FRI 8 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6/11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 6/12 고양 아람누리 | 6/13 군포 문화예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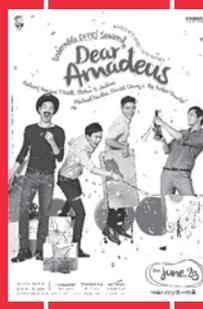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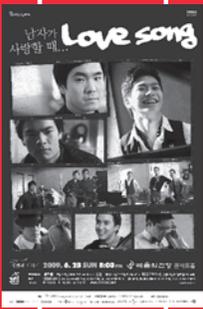
디토 연대기



DITTO CHRONICLE



ENSEMBLE DITTO



비올라 리처드 용재 오닐
피아노 조지 리
첼로 제임스 김
바이올린 스테판 피 재키브
바이올린 다니엘 정
바이올린 유치엔 헝
클라리넷 김환

www.dittofest.com



2019.6.19 WED 8 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CREDIA MUSIC & ARTISTS 후원 | KOREAN AIR 티켓 |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예매 |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프로그램 | 슈만 피아노 오중주, 작품44 | 모차르트 현악 삼중주 디베르티멘토 1악장 | 모차르트 클라리넷 오중주 4악장 | 드보르작 피아노 오중주 2악장 |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 4악장 투어 | 6.20 용인포모아트홀 | 6.21 부평아트센터 | 6.22 고양아람누리

different Ditto

messiaen | jae hyuck choi

CREZIA

디퍼런트 디토

리처드 용재 오닐 · 스테판 피 재키브 · 제임스 김 · 김한 · 일리야아쉬코프스키 ·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최재혁 Self in Mind I 2018 | Self in Mind III 2018 | Dust of Light for Ensemble 2019

올리비아 메시앙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

2019.6.28 FRI 8 PM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감사했던 50년을 넘어 보답하고 싶은 50년을 향해

지난 50년,
함께 해주신 고객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Ehnez Quartet
CREDIA

CREDIA MUSIC & ARTISTS





CREDIA Music & Artists 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 Music & Artists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크레디아 페이지(www.credia.co.kr)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REDIA Music & Artists

www.credia.co.kr